

# 무안에 끊이지 않는 추모발길... “아픔 나누고 싶어”

활주로 인근 간식·음료 등 가득 철책에 애도편지·검은리본 묶여 ‘영면하길’...공항계단 편지 빼곡 추모 우체통 설치 자원봉사자들 “안전한 세상 만들자는 다짐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는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폭설 등으로 교통 여건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추모객들은 무안공항을 찾아 안타까운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사고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오후 잦은 무안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고 현장 앞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차레상이 마련됐고, 비통한 표정의 추모객들은 경건하게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활주로를 둘러싼 철책에는 수많은 검은 리본과 희생자들의 안식을 비는 내용의 편지 등이 묶여있었고, 철책 앞으로는 각종 간식류와 음료, 담배와 주류 등 희생자들이 생전 좋아했던 기호품이 놓였다.

최근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듯 추모객들이 가져다 놓은 핫팩도 함께 자리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뜻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난감과 인형 등도 놓여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주말인 지난 11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사고 발생일인 12월 29일을 의미하는 1229개의 검은 추모 리본을 철제울타리에 매달았다. 김양배 기자

추모객들은 철책에 묶인 편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이들 중 한파를 뚫고 먼타지에서 달려온 추모객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울산에서 온 오무홍(56)·김수현(55)씨 부부는 “너무도 참담한 사고에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무안을 찾았다”며 “사고 현장에 와보니 당시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아팠을지 가늠이 되지 않아 눈물만 흘렸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에서 온 정은상(61)씨도 “너무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에 무안을 찾아왔다. 사고 현장을 보니 소식을 처음 접했던 당시의 충격이 상기된다”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고다. 유가족들의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잦은 무안국제공항 계단은 추모 공간이 돼 유가족과 추모객들의 마음이 담긴 애도 편지들이 가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과 고인과의 절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는 계단 난간을 빼곡히 메웠다.

편지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에서 따스하게 영면하시기를...’ 등 추모객들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일부 애도 편지는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말을 못 해줬네’, ‘꿈에서라도 찾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등 희생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구구절절한 메시지가, ‘이제 고생, 근심 다 끝내고 전국에서 편하게 쉬렴’ 등 오랜 인연을 가진 고인의 마지막 길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도 많은 이들이 공항을 찾아 아픔을 나누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편지를 남기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김현우(25)씨는 “지역에서 발생한 큰 사고로 많은 이들이 희생됐고, 유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조금이나마 그들이 겪는 아픔을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사고 재발을 막자는 의미에서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고, 공항을 찾는 시민들을 돕는 이도 있었다.

이근호(67) 손편지운동본부 대표는 추모 계단 앞에 사고 여객기를 형상화한 우체통을 세우고, 추모객들에게 엽서와 편지를 제공했다. 그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배지를 자비를 들여 제작 중에 있다.

이 대표는 “3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어, 유가족들의 슬픔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서울에서 내려왔다”며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추모 편지들이 영구히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우체통이 우리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다짐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붉은 우체통 조형물을 본뜬 추모 배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안=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무안공항 돌아온 유가족에게 변함없는 ‘도움의 손길’

장례 마친 유가족협의회 총회 추가수색·사고명칭 확정 등 논의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 지원 여건 “아픔 나눠 고통 덜어주고 싶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장례를 마친 뒤 지난 11일 무안국제공항에 돌아왔다. 유가족들은 이날 총회를 열고 추가 수색 여부와 사고 명칭 확정,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사 직후부터 이어진 자원봉사자들의 변함없는 따뜻한 손길은 돌아온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4일차인 지난 11일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은 유가족협의회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임시 쉼터로 돌아왔다.

이날 오후 12시께 공항 1층에서 진행된 총회에는 350여명의 유족이 참여했고, 외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가족협의회는 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날씨가 좋은 날을 기준으로 사흘간 추가 수색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나 유류품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할 경우 수색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족을 찾지 못한 유류품은 오는 2월15일 49재 이후 추모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항공·항공기 능력을 갖춘 장소에 임시 보관한다”며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가 있으면 영락공원에 안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기 유가족협의회 대



지난 11일 오후 무안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부의 재난구호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표로 박한신씨를 추대했다. 협의회는 유가족 중심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협조를 지자체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 생존자인 제주항공 승무원 2명도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유가족협의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움 방침이다. 오는 18일 오전 11시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정부 차원의 합동추모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대부분의 유가족이 다시 공항으로 돌아옴에 따라 참사 직후부터 꾸준히 공항을 지키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참사 당일부터 유가족 쉼터, 사위부스, 심리상담 지원 등을 운영해 온 대한적십자사는 이날도 40여명의 인원이 모여 공항 내에서 생필품과 식사 지원 등 유가족들과 추모객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이들은 앞으로 유가족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지속할 계획으로 13일부터는 공항 한편에 위치한 심리상담 지원 부스를 확대 운영, 참사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망운면 일대 주민들을 찾아 심리 상담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자원봉사센터와 센터 산하 무안자원봉사센터도 유가족과 추모객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에 다친 큰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연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각 센터에는 연일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전화와 익명의 구호품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익명의 기부자가 센터에 300줄의 김밥을 싸 들고 찾아오는 등 따스한 치유의 손길을 보냈다.

광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하석봉(56)씨는 “고향 무안에서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을 맞아 개인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슬픔에 빠진 고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함께 아픔을 나누며 고통을 덜고 싶다”고 밝혔다.

글=사진=무안=윤준명 기자

## 제주항공 사고기 블랙박스, 충돌 4분 전부터 저장 안돼

사고 당시 엔진 ‘셋다운’ 가능성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 모두 충돌 직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 충돌 4분 전부터 자료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여객기가 위급상황을 알리는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기체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으로 참사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나눈 교신 내용과 기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할 중요 단서가 없어진 것이다. 사고 당일 기체는 1차 착륙을 시도하던 오전 8시 59분께 메이데이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 그로부터 약 4분 뒤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했다.

항철위는 앞서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를 수거했다. 음성기록장치는 흙과 진흙 등 오염물질만 있어 외관상 온전한 상태였지만, 비행기록장치는 전원부와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손상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6일 두 기록장치를 모두 워싱턴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보내 분석을 의뢰한 항철위는 애초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렵다고 판단, 비행기록장치만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검증을 통한 신뢰



성 확보를 위해 음성기록장치도 함께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사고 여객기가 메이데이를 외쳤을 때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모든 엔진에 이상이 생겨 고장이 난 경우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비상용 배터리가 블랙박스 전원을 공급할 수 있지만, 사고 여객기인 B737-800기종은 비상용 배터리 역할을 하는 보조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쪽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 한쪽으로 비행할 수 있는 쌍발 엔진 구조를 가진 해당 기종이 노즈기어와 메인기어 모두 나오지 않아 동체착륙을 시도했던 점도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엔진이 전부 파손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항철위 관계자는 “사고 조사는 CVR과 FDR 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블랙박스 저장 중단 원인이 동력 상실인지 케이블 장치 오류인지 정확히 밝히고 사고 원인을 가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